글로컬라이제이션의 역사학

최갑수*

〈차 례〉

1. 용어의 문제
2. '근대성'의 해석과 글로컬라이제이션
3. 세계화의 역사학: 간략한 개관
4. 세방화의 역사학과 '혁명'의 문제

【국문초록】

'세방화'(世方化)란 'glocalization'의 번역어인데, 이는 'global localization'의 합성어이다. 세방화의 역사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것일까? 역사가로서 필자는 세방화를 연구주제이자 연구대상인 동시에, 연구의 관점이자 방법으로 본다. 1) 세방화란 역사적 흐름에서는 '세계화'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세방화의 역사학이란 곧 세계화의 역사학을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후자와는 달리 세계화의 일방성이나 동질성을 찾기보다는 비균질성과 다양성을 규명한다. 결국 세방화의 역사학이란 세계화에 대한 풍성한 접근을 뜻한다. 2) 아울러 세방화의 역사학이란 '세계화'와 '지방화'의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모든 역사현상이 이런 두 측면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을 공시태로 함께 아우르고 있지는 않지만, 필자는 19-20세기의 혁명들은 세방화의 문제의식을 통해 접근하여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혁명은 근대세계에서 근대성을 속성(速成)으로 이룩해내는 지름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우리는 혁명이라는 근대성의 형식 속에서 혁명가들이 그 내용을 전유하여 '지방화'하는 전략이 역사과정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여기선 결국 일종의 가설을 제시하는 셈인데, 그것을 세방화의 혁명학(革命學)이라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세방화, 세계화, 글로컬라이제이션, 근대성, 혁명

1. 용어의 문제

새로운 현실(차라리 이에 대한 인식이 더 정확한 말이겠지만)은 기성의 용어에 새로운 용례를 부여해 주거나, 적절한 바탕어가 없는 경우에는 아예 신조어를 만들어낸다. 우리의 두 핵심어의 하나인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세계화)은 앞의 예에, 다른 하나인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세방화)은 뒤의 예에 해당한다. 전자는 이미 19세기 말에 어원인 'globe', 'global'을 토대로 탄생하여 1960년대부터 경제학을 위시로 하는 사회과학에서 일부 사용되다가 1980년대 후반기에는 인구에 회자되면서 핵심적인 학술어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미국과 영국에서 레이건과 대처의 집권과 이들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확산이 배경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기에 '세계화'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세계화'를 뜻했고, 용례가 확산되면서 정치, 문화, 사회, 종교, 생태 등의 다차원을 포괄하는 풍성한 의미체계를 갖추어갔다. 이와 관련하여 'globalism' 역시 새 의미를 부여받았다. 그것은 애초 '세계적 간섭주의'라는 제국주의의 한 측면을 가

리키는 것이었는데, '세계화'의 부상과 함께 그것을 추진하거나 지지하는 일련의 정책적 대안을 통칭하는 '세계화주의'를 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세계화'가 '전지구적 상호연관성이 점증하는 과정'을 가리킨다면, 'globalism'은 '세계화'를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종종 세계화 과정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 양자를 동일시하곤 하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결코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우리말 역어(세계화)가 이런 혼란을 부채질한 측면이 없지 않다.

반면에 'glocal'과 이것의 과정명사인 '글로컬라이제이션'은 'global'과 'local'의 합성어이다. 『옥스퍼드 신조어사전(*Oxford Dictionary of New Words*, 1991)』에 따르면, 이 신조어의 탄생지는 일본이다. 소니의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盛田昭夫)가 '농업기술의 현지화'를 뜻하는 '토착화'(土着化; dochakuka)에 착안하여 '전지구적 관점을 국지적 조건에 적응시킨다'는 의미에서 'global localization'(세계적/전지구적 지방화)란 말을 사용한 이래 '글로컬라이제이션'은 1980년대에 재계의 특수어로 정착하였고 1990년 초에는 경영학, 특히 마케팅 분야의 전문어로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세계화'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과 원재료 조달 및 판매활동을 최적의 장소에 배치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방식이고, '지방화'가 현지의 문화나 소비자 기호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생산, 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활동들을 현지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실행하는 경영방식이라면, 이 둘을 합친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현지 국가의 기업풍토를 존중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사실 발상의 전환에 따른 신조어의 탄생이 일본에서 이뤄졌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본은 비유럽에서 서구화를 통한 근대화에 최초로 성공하여 보편과 특수의 관계라는 문제에 대해 남다른 강박관념을 지녔기 때문이다.[1]

---

1) Roland Robertson, "Glocalization: Time-Space and Homogeneity-Heterogeneity",

용어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번역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흔히 'globalization'을 우리말로 '세계화'라고 옮기나 사실 정확한 번역어는 아니다. 'global'을 '세계적'이라고 옮기는 셈인데, 그렇다면 'world history'와 'global history'의 구분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중국에서처럼 '전(지)구화'(全球化)로 옮겨야 하는데, 이미 '세계화'라는 우리말의 용례로 굳어져 여기서도 편의상 '세계화'라는 번역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globality'는 '세계성'으로 옮겨야 하나? 이는 더 어색하다. '세계성'이란 '세계적으로 공통된 성질'을 말하는데, 'globality'란 '전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상호연관성'을 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관성을 위해 '전(지)구성'이 아니라 '세계성'의 번역어를 그대로 살릴 생각이다. 마찬가지로 'glocalization', 'glocality' 역시 우리말로 옮기면 중국에서처럼 '全球地方化'(또는 '全球本土化'), '全球地方性'이 훌륭한 후보이나 일관성의 유지와 언어의 경제성을 위해 '세계화'와 '지방화'의 기계적인 합성어인 '세방화'(世方化), '세방성'(世方性)으로 표기한다. 다만 세계화와 세방화의 부정확한 의미 옮김으로 전구화, 전지구적, 전구성 등의 표현을 쓸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부기한다.

2. '근대성'의 해석과 글로컬라이제이션

앞서 보았듯이 '세방화'는 새로운 경영전략을 표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예컨대 소니(Sony)는 전세계적으로 브랜드는 동일하게 하되 국가별 소비자 기호를 반영하여 제품의 색상이나 기

Mike Featherstone et al. ed. *Global Modernities*, London: Sage, 1995, pp. 28-32. 일본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타모츠 아오키, 「현대 일본의 세계화」, 피터 L. 버거 외 편, 김한영 역. 『진화하는 세계화: 현대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 아이필드, 2005, 106-135쪽 참조.

능에 차이를 두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였고, 맥도날드(MacDonald) 역시 브랜드(상표), 매장의 실내장식과 색상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되 햄버거의 원료인 고기부분은 현지인의 기호에 맞게 다양화하였다.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방에 맞게 행동하라'(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는 구호는 경영전략에 그치지 않고 예컨대 'Glocal Forum'(2001)처럼 비정부기구(NGOs)의 행동강령이 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의 지방(또는 도시)이 중앙정부나 시장과 같은 전통적인 권력계서제를 우회하거나 전복하면서, 정보통신기술(IT)을 이용하여 세계체제(global system)와 직접적인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역사과정을 '세방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방화'의 의미와 용례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2)]

필자는 이런 경향을 증폭시켜 아예 '세방화'의 의미심급을 과감하게 '세계화'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서는 '세방화'가 '세계적인 것'(the global)과 '지방적인 것'(the local) 사이의 역동적이고 조건의존적(contingent)인 쌍방향의 변증법을 잘 포착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지방적인 것'은 중간 규모의 지역성을 우회하는 온갖 개인, 집단, 단위, 조직, 공동체만이 아니라 global-local, global-tribal, 국제(international)-국내(national), 보편-특수 등의 여러 대당의 상대적으로 국지화된 온갖 수준의 '지방성', 즉 '전지구적인 것'보다 하위에 있는 모든 종류의 '지방성'을 모두 포괄한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세방화'는 신조어이기는 하지만 '세계화'의 파생어이다. 양자가 같은 과정명사이면서 전자가 후자의 파생어로 나타났음은 후자가 이론과 분석의 개념으로서 일정한 한계를 지녀 전자가 필요했음을 전제한다. 바꿔 말하면, '세계화'가 '세계'(global)

---

2) The Glocal Forum, *The Glocalization Manifesto*, September 2004. 이 문건은 예컨대 '구글'(Google)과 같은 검색엔진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의 주도성과 '지방'(local)의 종속성에 입각하여 양자 사이에 일방적인 관계를 설정한다면, '세방화'는 '세계화'가 동질화와 다양화라는 상반되는 계기를 함께 지녀 '세계적인 것'과 '지방적인 것'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같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하나의 사회공간에서 연속체의 속성을 갖고 있음을 웅변해준다. 우리는 양자의 차별성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세계화/동질화	세방화/잡종화
문화적 제국주의	문화적 전지구화
문화적 종속	문화적 상호의존
문화적 헤게모니	문화적 상호침투
자주성	융합, 종합, 잡종성
단일의 근대화	복수의 근대화
서구화	전지구적인 차원의 이종교배
문화적 동조(同調)	문화적 혼혈, 크로스오버
세계문명world civilization	전지구적 보편세계global ecumene[3]

이렇듯 '세방화'는 '세계화'와 다른 어떤 별개의 과정이 아니며 사실상 양자는 동일한 과정을 운반한다. 단지 그것은 '세계화'의 가려진 현실을 드러내며 동시에 잡종화, 혼혈화를 위한 정책이자 기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세방화'는 '세계화'의 주체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수용이자 저항이며, 뒤틀림이자 넘어섬이다. 여기서 '지방'은 중심에 종속된 대상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에 고랑을 내는 농부들과 같은 존재이다. 이들은 세계화의 거센 흐름에 맞서 힘든 싸움을 벌이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정치적, 경

3) Jan N. Pieterse, "Globalization as Hybridization", Mike Featherstone et al. ed. *Global Modernities*, London: Sage, 1995, p. 62.

제적, 사회적, 그리고 물론 문화적인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을 글어 모은다.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전통을 '발명'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빚어내기도 한다. 아니 경우에 따라 '세계화' 과정에서 '지방'이 아예 새로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다양하게 중첩된 세계-지방의 연계망 속에서 탈영토화된 공간적 경관이 등장하기도 한다.[4]

문제는 같은 흐름에 속하는 '세계화'와 '세방화'를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세계화'는 언제나 '세방화'를 수반하게 마련이며, 보기에 따라 '세계화'는 곧 '세방화'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체적 현장에서 구체적 자료로 '세방화'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역사가로서 황하의 흐름 속에서 물과 진흙알갱이를 가려낼 발견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5]

'세방화'의 발견법 - 물론 주먹구구식이겠지만 - 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방화'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세계화'의 문제의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애초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결정과 이와 관련한 일련의 경제적 흐름을 통칭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세계화'가 분석과 이론의 개념으로 격상한 데는 그것이 유럽적 근대화보다 더 큰 흐름이어서 유럽적 근대성이 단순히 나머지 세계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었다. 유럽중심주의의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언제나 '비유럽적 유럽'으

---

4) 아르준 아파두라이, 차원현 외 역. 『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2004. 특히 제2장 참조.

5) 이런 문제 때문에 한 연구자는 아예 영어 grow로부터 grobalization이란 신조어를 만들고는 '세계화'를 '세방화'와 grobalization이라는 상충하는 두 하위과정의 합으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전자는 "여러 지역에서 특유의 결과를 야기하는 세계적인 것과 지방적인 것의 상호침투"인 반면에 후자는 "국가, 기업, 조직, 기타 다른 실체들이 갖는 제국주의적 야심, 다양한 지역에 스스로를 강요하려는 욕구 내지 필요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후자의 의미란 흔히 세계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세계화를 말한다. George Ritzer, "Rethinking Globalization: Glocalization/Grobalization and Something/Nothing", *Sociological Theory* 21, 2003, pp. 193-194.

로 예외적 존재로 간주되어왔던 일본말고도 여러 나라들이 근대성의 성취를 이미 이룩한 데다 그 성취의 여부나 정도가 '지방'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기에 '세계화'는 그 자체로 세계의 나머지 지역들이 유럽의 발전경로를 따라가고 있다는 주장을 논박하며 무너뜨린다.

이렇듯 '세계화', '세계성'은 '근대화', '근대성'보다 더 큰 것이며 또 꽤 다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유럽중심주의의 극복이라는 구호에 홀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세계화'와 '근대화'가 과연 그렇게 다른 것인지 되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화 전략이 근대화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을뿐더러, 유럽의 제1차 근대성(16-18세기)으로 '세계화'가 이전 시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이 흔히 지적되곤 한다. 그러기에 혹자들은 '세계화'를 '근대성의 귀결'(Anthony Giddens), '후기 근대성'(late modernity; David Harvey), '제2의 근대성(Urlich Beck)', '후근대성(post-modernity; Zygmunt Bauman)'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가 '근대성'의 운반체로서의 구실을 포기한 적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사실 '근대성'이야말로 '세계화'의 진원지요 추동력인 것이다.[6]

하지만 물론 '세계화'와 '근대화'는 다른 것이다. 내용도 그러하지만 상상력의 차원에서도 그렇다. '근대성'은 시간성의 구조화요

---

6) 안토니 기든스, 이윤희 외 역.『포스트모더니티』, 민영사, 1991; 울리히 벡, 조만영 역.『지구화의 길』, 거름, 2000; 데이비드 하비, 구동회 외 역.『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2005; 지그문트 바우만, 김동택 역.『지구화, 야누스의 두 얼굴』, 한길사, 2003. 중남미의 탈식민주의론자들은 16-18세기의 '제1차 근대성'을 더 정교하게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주도한 '제1차 근대성'(16세기-17세기 전반)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제2차 근대성'(17세기 후반-18세기)을 구분하여 양자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선 특히 Walter D. Mignolo, "The Geopolitics of Knowledge and the Colonial Difference", Mabel Moraňa et al. ed. *Coloniality at Larg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8, pp. 225-258 참조.

특정 지역의 특화이다. 그것은 유럽사의 특정시기를 근대성의 본터로 초들며, 전통-근대의 시간단절에 입각하여 질적 전환을 설명하고 다양한 매듭을 설정하여 시간구분의 단계로 끌어올린다. 그것은 유럽중심주의의 '철장'에 갇혀 있지만 내적 동력을 지녀 발전만이 아니라 모순과 지양의 계기를 함축하는 역동성을 뿜어낸다. 사실이지 근대역사학과 사회과학은 바로 이 근대성의 문제를 구명하기 위한 학문전략의 한 장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세계화'는 다른 차원의 구조화이다. 그것은 '사회적인 것'의 공간화요, 사회과정의 평면화이며, 또 사회과정의 복수화이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다양한 시간성이 깃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것은 계기적 발전만이 아니라 회절과 단절을 포괄한다. 하지만 공간화는 과정의 복합성, 과정의 깊이와 넓이, 그것들 사이의 모순의 역동성을 묻어버리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세계화'는 세계에 작용하는 여러 문화적 힘들의 복합성, 근대성에 대한 탈근대주의의 도전과 전자의 반격, 현대 자본주의 모순의 변증법 등을 오히려 호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유럽연합'(EU)에서 성장, 고용, 민주주의, 사회적 정의의 문제들은 유럽 공간의 관리, '단일시장'과 통화공동체의 유지, 동구로의 확대와 외부세계에 대한 장벽의 구축 등의 과제 아래 묻히고 있는 것이다.[7]

'세방화'의 개념화는 '세계화'의 평면적 공간화가 갖는 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세계화'의 파생물이자 보완물이다. 그것은 '세계화'가 힘인 동시에 한계라는 이중성을 표현한다. 그것은 '지방'이 단지 세계화의 대상에 그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점에서 세계화 과정 자체의 한 부분임을 드러내준다. 따라서 분석적 목적에서 '세방화'의 두 구성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 하나

---

7) Göran Therborn, "Globalizations: Dimensions, Historical Waves, Regional Effects, Normative Governance", *International Sociology* 15, 2000, pp. 153-155.

는 세계화(즉 문화적 요소, 모델, 관계들의 확산과 보편화)요, 다른 하나는 지방화(곧 세계적으로 확산된 요소, 모델, 관계들의 선택적 흡수, 해독, 재해석, 궁극적으로 특수화)이다. 이렇기에 '세방화'는 대안 공간, 대안적인 역사경로와 발전전략의 구상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근대성의 재해석과 재개념화, 요컨대 상대화를 함축한다. 이제 근대성은 더 이상 유럽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준거를 통해 규정되는 속성이 아니라 비유럽적 맥락과 만나 전지구적 현상으로 간주된다. 참으로 '세방화'는 '다수의 근대성'(multiple modernities)이요 그것도 '전지구적 근대성들'(global modernities)이다.[8]

이제 우리는 '근대성'을 통해 '세계화'와 '세방화'의 위상을 설정할 수 있다. 한 연구자는 짐멜(Georg Simmel)의 '형식사회학'(formal sociology)의 방법론을 따라 근대성의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고 그 내용을 '세방화'와, 형식을 '세계화'와 연결 짓는다. 그러니까 '세계화'는 근대성의 형식이요, '세방화'는 근대성의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조금 더 부연해보자. 근대성은 국민국가와 일련의 상징체계(국기, 국가, 국토, 박물관, 도서관, 국립묘지 등), 과학과 기술, 사회과학, 국민문학과 국어, 교육체제, 관료제, 군대, 일련의 정부기구, 우체국, 전화국, 신문, 방송국 등의 정보통신망, 그리고 우리의 주제인 혁명 등을 '형식적 특성'으로 갖는다. 이런 장치들이 전지구적으로 편재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구성요소로 하는 세계문화를 운위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도 한 국가나 '지방'의 '문명성'(文明性) 여부를 가늠하는 준거는 바로 이런 근대성의 형식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9]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 안 될 점은 근대성의 형식적 핵심으로서

---

8) S. N. Eisenstadt, "Multiple Modernities", *Daedalus* 129-1, 2000, pp. 1-29; Mike Featherstone et al. ed. *Global Modernities*, London: Sage, 1995.

9) Victor Roudometof, "Glocalization, Space, and Modernity", *The European Legacy* 8, 2003, pp. 37-60.

국민국가를 기본단위로 하고 복수적인 정치체로 구성되는 국제체제 내지 '국가간체제'(inter-state system)가 존재하고 또 기능한다는 사실이다. '세계화'가 동질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이 근대국가체제가 갖는 구조적 역능에서 나온다. 사실 19세기 후반기에 유럽의 열강들이 전세계에 걸쳐 패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개별국가의 내부역량보다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큰 강제력을 행사하는 유럽국제질서의 규정력 덕택이다.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들이나 '다국적기업'과 같은 새로운 조직체들 그리고 '비정부기구들' 등의 영향력 등이 '세계화'에 편승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구조적 운반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10]

하지만 근대성의 형식은 그 내용까지도 규정할 만큼 커다란 침투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근대성의 형식의 '세계화'는 형식적 문명적 요소와 규준이 세계적으로 채택되었음을 알려줄 뿐 사회적 삶을 조직하는 서구적 모델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참으로 그것과 대조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에 맞서 근대성의 내용의 '지방화', 곧 '세방화'가 일어났다. 여기서 근대성의 '내용'이란 근대성의 형식적 면모들의 생산과 관련된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정의 전통 및 문화를 말한다. 유럽의 근대성으로 말하자면, 합리성, 베버(Max Weber)가 말하는 개신교의 윤리, 개인주의, 관료제, 또는 물질주의, 물욕(物慾)과 구분되는 이해관계(interest), 개인적 소유주의 등이 이에 해당하며, 다른 지역이나 '지방'에서 전통과 문화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게 마련이다.

흥미롭게도 '세계화'와 '세방화'는 공간적 개념으로서 사회적 공간의 층위를 반영한다. 형식적 근대성의 사회적 공간은 외교, 다국

---

10) Victor Roudometof, "Globalization or Modernity?", *Comparative Civilizations Review* 31, 1994, pp. 18-45; 이매뉴얼 월러스틴, 이광근 역.『세계체제 분석』, 당대, 2005, 특히 제3장.

적기업 활동, 국제법, 인권 등과 같이 타자와의 접촉을 규제하는 장소와 규정의 형성과 관련이 깊다. 반면에 근대성의 내용을 담아내는 사회적 공간은 사적 영역과 그 외연으로서 이웃관계를 포괄한다. 참으로 '지방화'는 여러 요소들이 동시적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실제를 통해 '지방'의 정체성을 만들고 유지하고 재생산해낸다. 그러기에 근대성의 내용의 '지방화'와 근대성의 형식의 '세계화'는 언제나 상호작용하며 일상생활에서 명확하게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얽혀있다. 시공간의 압축, "시간을 통한 공간의 소멸"(Karl Marx)은 위의 두 과정의 동시화와 공조화를 부추기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성의 많은 형식적 측면들이 세계적으로 편재한다고 하여 근대성의 내용면에서 '세계화'가 진행되었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세계화'는 '세방적 근대성'을 야기하며, 유럽 근대성의 발전과 역사적 궤적조차 다른 '세방적' 근대성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더욱이 '세방적' 근대성을 운위한다는 것은 그것이 일련의 정치적 기획, 성찰적 행위, 문화적 흐름, 지방적 맥락 등이 합해져 생산되고 구축된다는 점을 뜻한다. 그것은 구조와 주체적 행위의 벡터의 합이다. '세방화'는 무심한 객관적 현상에서조차도 인간들의 의도와 동기가 부재하지 않으며, 구조의 늪에서 주체성을 살려낸다. 그것은 세계체제라는 장기적인 구조의 강제력 속에서 미래로 향해 열린 창이며, 인간해방의 가능성의 탐색로이다.[11]

이제 우리의 주제로 돌아오자. '세방화'의 역사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행한다는 것일까? 역사가로서 필자는 '세방화'를 연구주제이자 연구대상인 동시에, 연구의 관점이자 방법으로 본다. 1) 앞서 보았듯이 '세방화'란 역사적 흐름에서는 '세계화'에 다름 아니다.

---

11) Victor Roudometof, "Globalization or Modernity?", pp. 18-45; "Glocalization, Space, and Modernity", pp. 37-60; "Transnationalism, Cosmopolitanism and Glocalization", *Current Sociology* 53, 2005, pp. 113-135.

따라서 '세방화'의 역사학이란 곧 '세계화'의 역사학을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세계화'의 역사학과는 달리 '세계화'의 일방성이나 동질성을 찾기보다는 비균질성과 다양성을 규명한다. 결국 '세방화'의 역사학이란 '세계화'에 대한 풍성한 접근을 뜻한다. 2) 아울러 '세방화'의 역사학이란 '세계화'와 '지방화'의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모든 역사현상이 이런 두 측면을 공시태로 함께 아우르고 있지는 않지만, 필자는 19-20세기의 혁명들은 '세방화'의 문제의식을 통해 접근하여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혁명은 근대세계에서 근대성을 속성(速成)으로 이룩해 내는 지름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우리는 혁명이라는 근대성의 형식 속에서 혁명가들이 그 내용을 전유하여 '지방화'하는 전략이 역사과정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여기선 결국 일종의 가설을 제시하는 셈인데, '세방화'의 혁명학이라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3. 세계화의 역사학: 간략한 개관

'세계화'가 일상의 전문술어로 정착한 이래 적지 않은 역사가들이 그것의 이러저러한 측면을 조사해왔다. 세계사 서술의 미국 권위자인 맥닐(William McNeill)과 그의 계보를 잇는 '지구사가들'(global historians)이 그들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역사가들 일반의 관심과 대응은 더디고 미적지근하다.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세계화는 뜨거운 쟁점인 반면에 역사학에서는 소수가 부업삼아 천착하는 정도이다. 사정이 이러함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세계화를 당대사(當代史)의 부류로 보아 연구를 기피하거나 지역사 연구에 국한하는 학계의 관행, 그리고 그것을 불가피하고 불가역적으로 보는 사회과학계 일반(기든스Giddens를 위시

로 하는)의 시각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이 작용했을 것이다.[12]

하지만 역사학계의 영성한 천착에도 우리는 몇 가지 건강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역사학이 '세계화'의 주제와 관련하여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사회과학 일반이 쉽게 간취하기 어려운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전망의 획득이 아닐까 한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13]

1) 세계화가 불균등하고 비균질적인 과정이라는 인식이다.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부문간의 불균등이다. 예컨대 정치적 세계화는 경제나 문화 부문에서의 그것에는 확실히 뒤쳐져 있다. 환경이나 전지구적인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데 확실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이다. 이는 세계화가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부문에 따라 고유한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해준다. 다른 하나는 세계화가 야기한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빈부격차의 확대, 경제적 승자와 패자 사이의 더 커지는 불균형의 문제이다. 세계화의 지지자들이 세계화가 더 넓은 경제적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아무리 역설해도 이 점은 명백해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체제론자들이 주장하듯이 16세기에 형성된 중심-주변부의 관계를 여전히 재생산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런가 하면 성별(gender)이나 아동 등에 대한 세계화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한다면 매우 제한적이다.[14]

---

12) A. G. Hopkins, ed. *Globalization in World History*, New York: Norton, 2002; 배영수, 「오늘날의 세계화」, 송충기 외, 『세계화 시대의 서양현대사』, 아카넷, 2009, 547-592쪽; 양동휴,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13) 이하의 서술은 Peter N. Stearns, "Treating Globalization in History Surveys", *The History Teather* 36, 2003, pp. 153-160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

14) Paula S. Fass, "Children and Globalization", *Journal of Social History* 36, 2003, pp. 963-977; 'Globalization and Childhood', *Journal of Social History* 38, 2005, pp. 845-1046은 사회사학의 최근의 성과의 하나이다.

2) 다음은 시기설정과 시대구분의 문제이다. 사실 세계화에 역사적 전망을 부여하는 일은 역사학의 장기에 속한다. 이는 변화의 속성에 대한 섬세한 감각을 일깨운다. '지구사가들'은 세계화의 혁명적 성격을 강조하여 세계사를 다음의 시기들로 구분한다: pre-global → proto-global (1500-1950년) → global. 또는 세계화의 단계: archaic → proto-globalization (1600-1800)→ modern → postcolonial (1950년 이후) 또는 전근대의 지구화 → 근대 초기의 지구화 (1500-1850년경) → 근대의 지구화 (1850-1945년경) → 현대의 지구화 등. 많은 역사가들이 더 진화론적인 접근을 선호함은 물론이다. 흥미로운 것은 세계화의 관점에서 세계사를 통째로 재단하기보다는 세계화의 물결들을 추적하여 일종의 단계론을 만들려는 소박하지만 더 성과있는 시도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이 있다: 제1의 물결(세계종교의 확산과 초대륙적 문명의 탄생, 4-7세기) → 탈세계화의 흐름(속어화의 시대, 12-16세기) → 제2의 물결(유럽의 확대, 16-17세기) → 제3의 물결(유럽에 의한 최초의 세계전쟁, 1700-1815) → 제4의 물결(유럽 제국주의, 19세기 중반-1918년) → 탈세계화의 시기(간전기) → 제5의 물결(냉전의 세계화) → 제6의 물결(냉전의 종식에 따른 금융-문화적 세계화)[15]

그런가 하면 필자의 관심을 더욱 끄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화를 1900년 경의 그것과 1970년 이후의 그것의 두 단계로 설정하여 양자의 성격을 상대화시키려는 시도이다. '제1차 세계화': 1900년 전후의 시기, 전보, 해저케이블, 증기기선과 같은 신기술, 수에즈 및 파나마 운하의 개통, 국제여행과 상품의 이동에 관한 법적 제약이

15) Wolf Schäfer, "Global History: Historiographical Feasibility and Environmental Reality", Bruce Mazlish and Ralph Buultjens ed. *Conceptualizing Global History*, Boulder: Westview Press, 1993, pp. 47-69; A. G. Hopkins, "Globalization - An Agenda for Historians", A. G. Hopkins, *op. cit.*, pp. 1-11; 데이비드 헬드 외, 조효제 역. 『전지구적 변환』, 창작과비평사, 2002, 645-679쪽; Göran Therborn, *op. cit.*, pp. 158-166.

오늘날보다 적었음, 일본의 빛나는 성공적 적응, 문화적 세계화의 첫 흐름으로서 축구의 보급 등. 이 시도는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하나는 오늘날의 세계화의 정도와 규모에 대한 섬세한 감각을 키워주며, 다른 하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20년 이후의 약 20년간에 걸친 탈세계화의 흐름은 세계화를 불가역적인 과정으로 보는 목적론을 교정해준다.[16]

3) 세계화에 대한 다양하고도 복잡한 반응이다. '지구사가들'조차 지역에 따라 세계화에 대한 반응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인정한다. 특히 세계화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에 큰 편차가 있으며, 문명의 세속화 정도에 따라 세계화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다. 심지어 주도지역에서조차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유럽은 미국에 비해 이민문제에 대해 덜 개방적이나 주권의 문제에 대해선 더 개방적이다. 세계화에 따라 어디에서나 지역적 가치나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되나 이에 대한 대응은 반응만큼이나 다양하여, 세계화는 기술 및 경제결정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집단행동의 차원을 갖는다. 참으로 역사학은 세계화 역시 다른 역사적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구축물, 인간들의 노력이나 시도가 빚어내고 또 왜곡하기도 하는 역사적 형성물로 간주한다.[17]

---

16) 스티븐 컨, 박성관 역.『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 휴머니스트, 2004; Eric Foner, "American Freedom in a Global Ag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6, 2001, pp. 1-16; Thomas W. Zieler, "Just Do It! Globalization for Diplomatic Historians", *Diplomatic History* 25, 2001, pp. 529-551.

17) 세계화가 수렴과 분기, 전염과 저항, 확산과 전유의 중층적 과정이라는 점은 역사학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론화의 차원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Banu Helvacioglu, "Globalization in the Neighborhood: From the Nation-State to Bilkent Center", *International Sociology* 15, 2000, pp. 326-342; Robert Holton, "Globalization's Cultural Consequence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70, Dimensions of Globalization 2000, pp. 140-152: Douglas Kellner, "Theorizing Globalization", *Sociological Theory* 20, 2002, pp. 285-305 등.

4. 세방화의 역사학과 '혁명'의 문제

이제 필자는 '세방화'의 방법론을 관심주제인 '혁명학(革命學)'에 투사하여 어떤 유의미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 자리에선 잠정적인 가설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할까 한다. 혁명연구에서 'global-local 연결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더 직핍하여 혁명사에서 'global'이란 무엇을 형상화하는 것일까?

우선 제기할 것은 단계설을 취하든 아니면 물결론을 택하든 혁명의 '세계화'라고 부를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 연구자(Charles Tilly)는 한껏 심호흡하여 유럽에서 1492-1992년의 5세기간 일어난 일련의 반란과 봉기, 체제전복과 체제변화를 모두 혁명으로 뭉뚱그려 하나의 역사적 순환으로 일필휘지하는 대담함을 보이나, 이는 아무래도 거칠다. 'local'의 존재를 염두에 둔다면 역시 프랑스혁명(1789)과 러시아혁명(1917)이 분계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혁명사에 세 개의 분기점과 네 개의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전(前)혁명기' - 1789 - 입헌혁명기 - 1917 - 사회혁명기 - 1992 - 근대혁명의 종언. 물론 이런 이정표들 이외에도 우리는 1640년대, 1780-1790년대, 1830-1832년, 1848-49년, 1905-11년, 1917-1923년, 1989-1992년 등을 '혁명의 물결'이 일었던 시기로 기억할 수 있다.[18]

위의 시기구분에서 중요한 것은 혁명을 가능한 정치적 기획의 일환으로 사고했느냐 하는 점, 그리고 정치적 기획의 내용이 무엇

---

18) 찰스 틸리, 윤승준 역. 『유럽혁명 1492-1992』, 새물결, 2000; 데이비드 파커 외, 박윤덕 역. 『혁명의 탄생: 근대 유럽을 만든 좌우익 혁명들』, 교양인, 2009. 소련이 해제되고 '동구혁명'이 폭발했던 1992년을 근대혁명의 종언기로 보는데 대해 이의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혁명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련의 소멸이 사회주의혁명론의 역사적 근거를 크게 훼손하여 대안적 전망의 호소력을 약화시키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냐 하는 점이다. 1789년 이전의 시기에 실제로 혁명이 일어났음에도(예컨대 네덜란드혁명 1566-1581, 영국혁명 1642-1688, 미국혁명 1763-1791년 등) '전'혁명의 시기로 파악하는 것은 이 시기에 혁명은 그야말로 터져 나온 것이지 꾀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당시대인들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혁명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리라. 1789년의 프랑스혁명의 발발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에 혁명가들은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지 몰랐고 실제로 준거할만한 역사적 선례도 사실상 부재했다. 참으로 당시만 해도 프랑스혁명은 미증유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10년에 걸쳐 진행된 프랑스혁명은 근대혁명의 이념형이 되었다. 혁명의 근대적 관념이 생겨났고, '변화'를 정상상태로 보는 근대성의 인식이 탄생했다. 그러기에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함께 보수주의가 탄생한 것도 바로 혁명기였다.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혁명적 낙관주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혁명의 무대에 이제껏 정치로부터 소외되어왔던 다수의 민중들이 대거 가담하면서 심지어 소유권의 변경에까지 이르는 심원한 변화를 이룩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혁명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사의 한 과정이 아니라 삶의 조건까지 바꾸어낼 수 있는 정치적 기획의 하나가 되었다. 이미 혁명의 와중에서 바뵈프(Babeuf)는 공산혁명을 꾀하지 않았던가!

사실 프랑스혁명은 정치적 기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러 종류의 혁명관을 배태한다. 1) 입헌혁명관: 프랑스혁명은 급격한 단절을 야기한 듯 보이지만 적어도 혁명의 초기 국면에서는 단계적 발전을 보여준다. 구체제의 한 기구로 출발한 '삼부회'는 기존의 군주제 하에서 스스로 '국민제헌의회'로 탈바꿈하여, 성문헌법을 제정하고 광범위한 개혁을 통해 구체제를 해체시키고 통치의 정치적 구조를 바꿔버렸다. '의회혁명'을 이룩한 것이다. 루이16세의

반동에 시도에 맞서 파리민중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긴요했지만(1789년 7월 14일의 '바스티유의 함락'), 1789-1792년의 혁명은 기본적으로 '위로부터의 혁명'의 성격을 갖는다. 흔히 '입헌혁명'의 자유와 인간해방의 이념을 흔히 강조하나 이미 당시에도 그것이 '부국강병'의 계기를 갖는 것임이 인식되고 있었다. 즉 18세기 내내 진행된 영국과의 패권싸움('제2의 백년전쟁')에서의 패배가 입헌혁명의 주요 배경의 하나인 것이다. 2) 민중혁명관: 1792-1794년의 혁명적 경험을 구조화한 개념이다. 파리민중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혁명'의 본보기이다. 이를 통해 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민주혁명이 탄생했다. 하지만 민중혁명관은 정치적 기획으로는 호소력이 약하다. 민중혁명의 지도력을 민중 출신이라고 보기 어려운 '산악파'와 나눠가졌거니와, 혁명의 민중적 성격이 혁명적 지도력과 헤게모니의 유지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로부터의 혁명'도 기존체제의 반혁명에 맞설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민중의 개입을 요청했기에 민중혁명관은 최소한 입헌혁명관의 부(副)명제로의 구실을 부여받았다. 3) 사회혁명관: 이것은 입헌혁명관의 이중성이 갖는 모순(인간해방과 부국강병의 긴장관계), 그리고 민중혁명관의 한계(사적 소유권의 유지)를 돌파하기 시도였다. 중요한 것은 기획의 목표가 아니라 기획의 내용이다. 대중들을 훈련시켜 대규모 혁명군으로 만드는 것이 쉽게 취하기 어려운 전략이라면, 어떻게 사회혁명을 수행할 것인가? 의지에 찬 무장소수에 의한 기존 국가권력의 탈취와 파괴, 혁명적 합법성을 통한 새 국가건설, 새 국가를 통한 소유제의 근본적 재편성, 이것이 이미 프랑스혁명기에 구상된 새로운 혁명론이었다.[19]

돌이켜 볼 때, 프랑스혁명으로부터 러시아혁명에 이르는 '장기19

19) 최갑수, 「혁명의 로베스피에르, 로베스피에르의 혁명」, 장 마생, 양희영 역.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교양인, 2005, 9-27쪽; 「한국의 서양사학과 근대성의 인식」, 『서양사론』 제95호 (2007년 12월), 51-81쪽.

세기'는 혁명의 정치적 기획의 측면에서 보면 '입헌혁명관의 세기'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위로부터의 혁명'은 이미 1780년대에 덴마크에서 계몽전제군주제가 시도한 바 있다. 그것은 농노제를 폐지하여 자유의 진전을 향한 착실한 일보는 내딛었지만 역시 무엇보다도 부국강병책의 일환이었다. 카리브해의 프랑스 식민지였던 생도맹그의 흑인노예들이 대반란을 일으켜 1804년에 아이티(Haiti)라는 새 나라를 건설했을 때도 이미 헌법을 제정하고 제헌의회 → 입법의회의 행로를 걸었음은 이미 '입헌혁명관'이 가능한 정치적 대안으로 자리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혁명관'을 되살리고 또 다듬으려는 집요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19세기를 입헌혁명기로 보는 것은 당시 대부분의 혁명가들을 사로잡았던 정치적 기획의 원천이 프랑스혁명의 초기 국면이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2월혁명을 위시로 하여 1848-49년에 발생한 모든 유럽혁명들은 입헌혁명을 통한 새 국가건설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입헌혁명관이 대표적인 정치적 기획으로 자리잡은 시점으로 파악하여 무방하다고 본다.

이제 우리의 문제의식으로 돌아오자. 필자는 각기 프랑스혁명의 초기와 러시아혁명을 이념형으로 하여 만들어진 '입헌혁명관'과 '사회혁명관'이 각기 19세기 후반 - 1917년의 시기와 1917-1992년의 시기에 전지구적인 파급력을 갖는 '세계 이데올로기'(global ideology)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혁명가들을 매개로 하여 유럽만이 아니라 비유럽세계에서도 개별('local') 혁명의 운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러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전제조건이 마련되어야 했다.[20]

1) 우선 위에서 지적했듯이 프랑스혁명을 본보기로 하여 '입헌혁명관'이 유력한 정치적 기획의 대안으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

20) Nader Sohrabi, "Revolution as Pathways to Modernity", Julia Adams et al. ed. *Remaking Modern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5, pp. 300-329.

유럽도 아닌, 그것도 흑인노예들이 일으킨 '아이티혁명'은 이미 19세기 초에 그 점을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프랑스의 2월혁명(1848년)이 1789년의 혁명과는 달리 민중혁명('2월의 날들')이 선행했음에도 '제헌의회 소집 - 헌법 제정 - 제헌의회의 해산 - 새 헌법에 의한 입법의회의 소집'의 과정을 반복했음은 유럽의 차원에서 정치 기획으로 공고해졌음을 입증한다.

2) 이 단계에서 던질 질문은 왜 입헌혁명관이 정치적 기획의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당시 유럽에서 간주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프랑스가 혁명을 통해 근대국가라는 리바이어던의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역사의 대리인은 나폴레옹이었지만, 어쨌든 혁명이 무엇보다도 부국강병의 지름길로 간주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프로이센 개혁'(1808-1812)이 왜 일어났겠는가? 따라서 이런 경험과 인식으로부터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정치적 기획이 탄생했다. 물론 입헌혁명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지녀 인간해방의 계기를 지녔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구체제는 거의 언제나 입헌혁명에 부정적이었고 반혁명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것이 정치적 기획으로 모색되었음은 무엇보다도 국가와 사회를 갱신해주는 거의 유일한 부국강병책이었기 때문이다. '위로부터의 혁명'이 언제나 대외전쟁에서의 패배에서 비롯했음은 이를 입증한다.

3) 하지만 위로부터의 혁명으로서의 입헌혁명관이 '세계 이데올로기'가 되려면 또 다른 차원의 적극적 계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유럽의 패권과 우위이다. 19세기 후반기는 유럽의 제국주의의 시기이다. 비유럽,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부분이 유럽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은 나라들도 유럽에 압도되었으며, 따라서 당연히 이들 나라의 엘리트들은 부국강병책을 강구했고, '위로부터의 혁명'의 일환으로서 '입헌혁명'을 추진했다. 일본의 명치유신(1868)이 그러했고, 러시아혁명(1095년), 이란혁명

(1906년), 오스만혁명(1908년), 멕시코혁명(1910년), 중국신해혁명(1911년)은 모두 전쟁에서의 패배로 말미암았고 기존의 군주제가 개혁을 거부하자 엘리트층의 일부가 위로부터의 혁명을 단행한 것이다. 참으로 혁명은 근대성을 향한 관문이었다.

4) 러시아혁명의 성공은 혁명의 '세계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이제 혁명의 직접적인 목표가 혁명을 일으켜 기존 권력으로부터 헌법의 제정의 약속을 얻어내는 것 - 물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존 권력을 무너뜨리는 극단적인 조치를 무릅쓰고라도 - 에서 기존 국가권력의 탈취로 바뀌었다. 이런 점은 예컨대 중국공산당의 창설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대조(李大釗)가 1917-18년간에 보여주는 모델 혁명의 전환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1917년만 하더라도 여전히 입헌혁명론의 신봉자였는데, 10월혁명이 성공하면서 1918년 7월에 이르면 「법아혁명지비교관(法俄革命之比較觀)」에서 양 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비교하면서 러시아혁명의 사회주의혁명론으로 귀착하였다. "프랑스혁명은 프랑스적 정신의 각성의 징후일 뿐만 아니라 19세기 전 세계인의 보편적 정신의 각성의 징후이다. 러시아혁명은 러시아적 정신의 각성의 징후일 뿐만 아니라 20세기 전 세계인의 보편적 정신의 각성의 징후이다." 그는 프랑스혁명을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보고 러시아혁명은 이와 달리 세계주의적 성격을 지녀 중국은 그 영향 아래서 세계 진보의 큰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발 근대화의 계기와 모범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하여 그는 동료 지식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러시아에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을 대함에 우리는 다만 머리를 들어 세계 신문명의 서광을 맞고, 귀를 기울여 자유와 인도주의 위에 세워진 새로운 러시아의 소식을 들어야 하며, 세계의 새로운 흐름에 우리 스스로 적응해 나가야만 한다."[21]

---

21) 최갑수, 「프랑스혁명과 러시아혁명: 비교와 상관성」, 『프랑스사연구』 제18

혁명의 '세계 이데올로기'의 존재와 변화는 개별 혁명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오스만제국의 1908년의 '청년 튀르크 혁명'의 경우 무력으로 군주제를 장악할 수 있음에도 '입헌혁명'의 스케줄에 따라 혁명을 그 단계에서 그쳤다. 결국 청년 튀르크당은 술탄 압뒬하미드2세를 쫓아냈지만 국가권력의 전복을 꾀하기는커녕 '1876년의 헌법'을 회복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러시아혁명 이후라고 하여 입헌혁명론의 설득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독일혁명(1918-1923년)에서 주도세력인 사민당과 독립사민당은 입헌혁명론을 고수했고 노동자 병사평의회 역시 제헌의회의 선거 실시가 주요한 요구사항의 하나였다. 하지만 러시아혁명 이후 정치적 기획의 '전지구적 상상력'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입헌혁명론'은 1945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많은 신생국가들의 탄생설화로 바뀌어 '위로부터의 혁명'의 한 경로가 되었던 반면에, 사회혁명을 추진하려는 혁명가들은 이제 기존 국가권력의 탈취를 통한 새 사회의 건설에 매달렸다. 냉전의 시대에 '입헌혁명론'은 혁명의 기획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근대화라는 범속성의 차원으로 강등되었던 것이다.[22]

러시아혁명에서 중국혁명에 이르는 1905-1911년의 시기는 참으로 입헌혁명론이 혁명의 세계 이데올로기의 구실을 톡톡히 하였던 드문 시기였다. 모든 혁명에서 '전보국'(電報局)을 혁명 세력이 최우선적으로 장악하려고 했음은 혁명이 세계화의 한 품목, 곧 근대성의 형식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을 웅변한다. 이 시기가 앞서 지

집 (2008년 2월), 89-119쪽.

22) Nader Sohrabi, "Historicizing Revolutions: Constitutional Revolutions in the Ottoman Empire, Iran, and Russia, 1905-1908",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 1995, pp. 1383-1447; "Global Waves, Local Actors: What the Young Turks Knew about Other Revolutions and Why It Mattered", *Comparative Study of Society and History* 44, 2002, pp. 45-79; 크리스 하먼, 임성윤 역. 『패배한 혁명: 1918-1923년 독일』, 풀무질, 2007.

적했듯이 ‘제1차 세계화’의 시기였음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사실 입헌혁명은 근대성의 형식을 모방하는 것이 부국강병의 요체라고 보았던 시기의 혁명 이데올로기였다. 혁명가들은 ‘헌법의 제정과 실시’를 진보와 효율를 보장하는, 서구를 따라잡을 수 있는 정치적, 법제적, 행정적 합리성의 수단으로 보았다. 강조픈 것은 혁명가들이 각 혁명의 특수성과 관계없이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프랑스적 모델과 레닌적 모델은 이른바 후진국에서 근대성에 이르는 대표적인 경로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 문제나 구체제의 성격에 관계없이 차용되었다. 그러니까 혁명이 벌어질 당시의 전지구적 모델의 존재 자체가 혁명가들의 인식의 지평(ideoscape)을 지배하여 혁명의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물론 혁명의 과정에서는 global-local의 연쇄가 작용하며 개별 혁명의 성패와 성격을 규정한다. 1) 먼저 혁명가들은 세계 이데올로기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길들여 그것을 ‘지방화’한다. ‘세방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2) 다음으로 혁명가들은 세계 이데올로기를 ‘지방’의 전통과 언어, 사상체계에 입각하여 ‘지방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가운데 잡종화와 혼혈화가 일어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낸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입헌혁명의 경우 ‘지방’의 혁명가들이 자국의 역사 속에서 입헌주의의 전통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3) 마지막으로 ‘지방’의 문제, 불만, 요구들이 세계 이데올로기에 틈입하여 ‘전지구적인 것’을 토착화한다. 혁명 엘리트와 민중의 접촉을 통해 지방적 관심과 요구가 전지구적 해결방식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 주체, 기존의 문화 내지 문명의 전통, 제기된 요구사항 등은 혁명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차이로 말미암아 동일한 세계 이데올로기가 다른 내용을 갖게 된다. ‘세방화’를 통해 근대성의 내용에 편차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가설적 문제제기가 혁명학에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주 단순화시켜 말하면, 혁명연구에서는 그간 구조적 분석이 우세를 점해왔다. 프랑스혁명에 대한 '전통해석'이 그렇고, 혁명의 사회과학에서도 예컨대 배링턴 무어(Barrington Moore)나 스카치폴(Theda Skocpol)이 그러했다. 그리고 구조적 해석은 혁명의 발발조건이나 혁명 이후의 사회의 성격을 설명하는데 장기를 발휘해왔다. 하지만 한 비판자(슈웰William H. Sewell, Jr.)에 의하면, 이런 구조적 분석은 구조주의적 성격을 지녀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의 구실을 축소시킨다. 물론 혁명의 자연사 연구(브린튼Crane Brinton 등)에선 '지식인의 이반(離反)'을 혁명 발발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여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나 주로 구체제의 전복과의 인과관계에 집중하였고, 미국학계의 혁명연구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혁명의 '세방화' 연구는 혁명의 진행과정에 미치는 이데올로기의 구실에 주목함으로써 혁명가들을 역사의 주체로 부상시킨다. 바로 이들이 혁명의 전지구적 패러다임과 '지방성'을 매개하는 연결고리인 것이다. 우리는 종종 역사의 격동기에, 혼돈이론이나 세계체제론의 어법을 빌리면 역사의 '분기점'에서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사소한 흔들림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음을, 구조에 압도되기 마련인 인간들이 역사의 포락선을 찢고 '대전환'을 꾀할 수 있음을 안다. 19-20세기의 혁명들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23]

결론삼아 시사점을 말하면, 혁명의 세방화는 예컨대 우리의 현

23) 배링턴 무어, 진덕규 역.『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까치, 1985; 테다 스카치폴, 한창수 외 역.『혁명의 비교연구: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중국혁명』, 까치, 1981; William H. Sewell, "Ideologies and Social Revolutions: Reflections on the French Case", *Journal of Modern History* 57 (1985), pp. 57-85; 크레인 브린튼, 차기벽 역.『혁명의 해부』, 문명사, 1976; Jack A. Goldstone,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and Knowledge Accumulation in the Study of Revolutions," James Mahoney and Dietrich Rueschemeyer, ed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41-90.

대사 이해에도 남다른 색조를 부여해 줄 수 있다고 필자는 본다. 앞서 보았듯이 제2차대전 이후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민족해방운동이 벌어졌을 때에 '사회주의혁명론'이 '전지구적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반면에, 남한과 같이 밑으로부터가 아니라 국제적 규정력에 의해 신생국가가 만들어질 경우 예외없이 과거 입헌혁명론자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국가의 제도적 장치로 들어섰다. 참으로 주체 없는 부르주아혁명이라고 하겠다. 헌법, 의회, 선거제, 사법제도, 외교, 기타 서구가 '문명국가'의 조건들이라고 불렀던 그 모든 것들(군대, 학교, 박물관, 사법제도, 병원, 우체국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당시 이른바 서구 중심의 문명적 규준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예컨대 유럽에서는 그렇게도 오랜 기간 특히 노동자들과 여성들이 투쟁하여 얻어냈던 '보통선거권'이 그냥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헌법 역시 당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수준에서 보더라도 이를테면 '바이마르 헌법'에 준하는 훌륭한 정치적 이상(자유주의적이자 일정 수준에서 공화주의적인)을 담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기에 헌법은 가치요 이상이었고, 그것과 정치 및 사회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간의 우리의 민주화운동은 바로 이 괴리를 메우고 헌법적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었다. 그렇기에 4·19혁명만이 아니라 1987년 6월항쟁 역시 그람시가 말하는 '수동혁명'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 민주화 과정이 군사독재세력과 민주화운동 세력 간의 '타협에 의한 민주화', '거래에 의한 민주화'의 형태를 띠게 마련이었다. 이는 우리의 민주화가 참으로 혁혁한 것임에도 '지연된 입헌혁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기에 그것은 불철저하고 보수적이었다. 이 불철저함은 민주화에도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살아있는 현실에서 잘 드러난다. 참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예컨대 노동3권)를 하위법인 '특별법'이 막고 있는 이 기막힌 법현실의 근저

에는 아직도 일제강점기의 식민당국의 '폭민관'(暴民觀)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1980년의 광주항쟁은 분기점을 이룬다. 그것은 그간 은폐 내지 호도되어왔던 군부독재와 특히 그것을 지원하는 미국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함으로써 '입헌혁명'의 포락선을 넘어설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의 도약을 가능하게 했다. 해방공간과 특히 한국전쟁을 통해 '사회혁명'의 이념이 뿌리째 뽑힌 척박한 사상적 풍토에서 자생적 사회주의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 우리의 민주화운동에서 1987-1992년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데, 민주화운동의 주체세력과 관련하여 자유주의 세력과 급진적 민중세력 사이에 분화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차원에서 보면 '철 지난' 레닌식 혁명모델이 일부에서나마 적극적인 고민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로 호소력이 급속히 약화되었지만 진보정당이 들어설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우리의 정치적 사고를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 이렇듯 혁명의 세방화 연구는 우리의 민주화과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로를 열어주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적인 것과 지방적인 것이 서로 교차하며 되먹임질을 하는 훌륭한 예를 제공해준다.

참고문헌

무어, 배링턴. 진덕규 역.『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까치, 1985.

배영수,「오늘날의 세계화」, 송충기 외,『세계화 시대의 서양현대사』, 아카넷, 2009, 547-592쪽.

버거, 피터 L. 외 편, 김한영 역.『진화하는 세계화: 현대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 아이필드, 2005.

브린튼, 크레인. 차기벽 역.『혁명의 해부』, 문명사, 1976.
스카치폴, 테다. 한창수 외 역.『혁명의 비교연구: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중국혁명』, 까치, 1981.
아파두라이, 아르준. 차원현 외 역.『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2004.
양동휴,『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최갑수,「혁명의 로베스피에르, 로베스피에르의 혁명」, 장 마생, 양희영 역.『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교양인, 2005, 9-27쪽.
_____,「한국의 서양사학과 근대성의 인식」,『서양사론』제95호 (2007년 12월), 51-81쪽.
_____,「프랑스혁명과 러시아혁명: 비교와 상관성」,『프랑스사연구』제18집 (2008년 2월), 89-119쪽.
틸리, 찰스. 윤승준 역.『유럽혁명 1492-1992』, 새물결, 2000.
파커, 데이비드 외, 박윤덕 역.『혁명의 탄생: 근대 유럽을 만든 좌우익 혁명들』, 교양인, 2009.
하먼, 크리스. 임성윤 역.『패배한 혁명: 1918-1923년 독일』, 풀무질, 2007.
헬드, 데이비드 외, 조효제 역.『전지구적 변환』, 창작과비평사, 2002.
Crossley, P. K. *What is Global History*, Cambridge: Polity, 2008.
Eisenstadt, S. N. “Multiple Modernities”, *Daedalus* 129-1, 2000, pp. 1-29.
The Glocal Forum, *The Glocalization Manifesto*, September 2004, in http://www.google.co.kr/search?complete=1&hl=ko&q=the+glocalization+manifesto&btnG=Google+%EA%B2%80%EC%83%89&lr=&aq=f&rlz=1R2GGLR_ko.
Goldstone, Jack A.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and Knowledge Accumulation in the Study of Revolutions,” James Mahoney and Dietrich Rueschemeyer, ed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41-90.

Helvacioglu, Banu "Globalization in the Neighborhood: From the Nation -State to Bilkent Center", *International Sociology* 15, 2000, pp. 326-342.

Holton, Robert "Globalization's Cultural Consequence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70, Dimensions of Globalization 2000, pp. 140-152.

Hopkins, A. G. ed. *Globalization in World History*, New York: Norton, 2002.

Kellner, Douglas "Theorizing Globalization", *Sociological Theory* 20, 2002, pp. 285-305.

Mazlish, Bruce and Ralph Buultjens ed. *Conceptualizing Global History,* Boulder: Westview Press, 1993.

Mazlish, Bruce and Akira Iriye ed. *The Global History Reader*, New York: Routledge, 2005.

Megill, Allen "Globalization and the History of Ideas",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66, 2005, pp. 179-187.

Mignolo, Walter D. "The Geopolitics of Knowledge and the Colonial Difference", Mabel Moraňa et al. ed. *Coloniality at Larg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8, pp. 225-258.

Pieterse, Jan N. "Globalization as Hybridization", Mike Featherstone et al. ed. *Global Modernities,* London: Sage, 1995, pp. 45-68.

Quijano, Aníbal "Coloniality of Power, Eurocentrism, and Social Classification", Mabel Moraňa et al. ed. *Coloniality at Larg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8, pp. 181-224.

Ritzer, George "Rethinking Globalization: Glocalization/Grobalization and Something/Nothing", *Sociological Theory* 21, 2003, pp. 193-209.

Robertson, Roland "Glocalization: Time-Space and Homogeneity-Heterogeneity", Mike Featherstone et al. ed. *Global Modernities,* London: Sage, 1995, pp. 25-44.

Roudometof, Victor “Globalization or Modernity?”, *Comparative Civilizations Review* 31, 1994, pp. 18-45.

Roudometof, Victor “Glocalization, Space, and Modernity”, *The European Legacy* 8, 2003, pp. 37-60.

Roudometof, Victor “Transnationalism, Cosmopolitanism and Glocalization”, *Current Sociology* 53, 2005, pp. 113-135.

Sewell, William H. “Ideologies and Social Revolutions: Reflections on the French Case”, *Journal of Modern History* 57 (1985), pp. 57-85.

Sohrabi, Nader “Historicizing Revolutions: Constitutional Revolutions in the Ottoman Empire, Iran, and Russia, 1905-1908”,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 1995, pp. 1383-1447.

Sohrabi, Nader “Global Waves, Local Actors: What the Young Turks Knew about Other Revolutions and Why It Mattered”, *Comparative Study of Society and History* 44, 2002, pp. 45-79.

Sohrabi, Nader “Revolution as Pathways to Modernity”, Julia Adams et al. ed. *Remaking Modern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5, pp. 300-329.

Stearns, Peter N. “Treating Globalization in History Surveys”, *The History Teather* 36, 2003, pp. 153-160.

Therborn, Göran “Globalizations: Dimensions, Historical Waves, Regional Effects, Normative Governance”, *International Sociology* 15, 2000, pp. 151-179.

The History of Glocalization

Choi, Kab-Soo

세방화(世方化) is a korean translated word for ‘glocalization’ as a compound word of ‘global localization’. What is doing the history of glocalization? For me as historian, glocalization is a method of study as well as an object of study. 1) Glocalization is equivalent of globalization as a historical entity. So the history of glocalization is exactly a history of globalization. But it examines closely the heterogeneity and variety, not the unilaterality and homogeneity of the globalization. After all, it means a multifaceted approach to globalization. 2) Also, the history of glocalization demands to consider two aspects of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together. Though all the historical phenomena do not comprise these two aspects as synchrony, I can discover new features of many modern revolutions through the problématique of glocalization. Because a revolution could be seen really as a shortcut pathway to modernity, we can discern the influences which revolutionaires’ strategies of appropriating and ‘localizing’ the contents of revolution had given to the historical processes of modernity in the form of the revolution. To sum up, here I propose a new approach as an analytical means, which would be called as the Studies of Revolutions in terms of Glocalization.

Key words : glocalization, global localization, globalization, modernity, revolution

최갑수
소속: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교수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713 현대홈타운@ 302동 1403호
전화번호: 02-880-6206, 011-9713-3684
전자우편L kchoi7@snu.ac.kr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1일 투고하여
2009년 12월 1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9년 12월 31일 간행함